

22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1)

마귀 아볼루온과의 전투에서 칼을 놓쳤던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되어 군사로서 더욱 강력한 영적 훈련을 받는다.

검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Valley of the Shadow)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는 매우 외로운 장소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렘 2:6)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¹ 이제 당신이 보게 될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볼루온과 싸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에 이르러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었는데(민 13장) 서둘러 되돌아가고 있었다.²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물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두 사람— 돌아가시오, 돌아가! 당신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우리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오.

크리스천—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 무슨 일?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갔다면,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³

크리스천— 무엇을 만났습니까?

두 사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시 44:19; 107:10).⁴

크리스천— 무엇을 보셨습니까?

두 사람—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 요귀(妖鬼), 사티로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숲의 신: 말의 귀와 꼬리를 가졌고 술과 여자를 좋아함)와 용들이 구덩이에서 우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에서 계속되는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죽음도 자신의 날개를 항상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욥 3:5; 10:22).⁵

크리스천—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의

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렘 2:6).⁶

두 사람—당신이나 가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고, 크리스천은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사 8:14-15).⁷ 다시 왼쪽을 바라보니,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설 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 수렁에 다윗 왕도 한때 빠졌는데, 주께서 그를 끌어내 주시지 않았다면 의심할 것 없이 그도 그 속에서 질식사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곳의 길은 지극히 좁았다. 그래서 선한 크리스천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⁸ 어둠 속에서 한쪽의 도랑을 피하려다가는 다른 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피하려다가는 도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걸어갈 때 나는 그의 쓰디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들 외에도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랐다.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 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볼루온과 달리 이런 위험은 크리스천의 칼을 개의치 않았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엡 6:18)라고 하는 다른 무기에 의지했다.⁹ 크리스천은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울부짖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시 116:4).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음울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때때로 그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길 위의 진흙처럼 짓밟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름 끼치는 광경과 무서운 소음들은 수 km를 걷는 동안에도 계속 보이고, 들렸다.

<Q&A>

1.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렘 2:6)

2.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민 13:30-33)

3. 순례 길을 나섰다가 되돌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눅 13:34-35)

4. 믿음을 없애려는 시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 44:19; 107:10)

5. 두 사람의 말이 과장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민 13:32-33)

6. 크리스천의 응답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렘 2:6)

7.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는 도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 8:14-15; 고후 11:3; 벰후 2:1-3)

8. 영적 침체를 맞이했을 때 무엇에 주의해야 합니까? (사 31:1-2)

9. 크리스천이 의지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엡 6:18)